

태국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적 특징

- 5개 지역을 중심으로 -

권석무(용인대학교 석사과정) · 이승재(용인대학교 박사과정)
· 공성배*(용인대학교 부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적 특징을 밝혀, 태국 무에타이의 발전 및 변천 과정의 이해를 돕고, 국내 무에타이 연구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무에이 롱부리(Muay Lopburi)’, ‘무에이 차이아(Muay Chaiya)’, ‘무에이 코랏(Muay Korat)’, ‘무에이 따 사오(Muay Tha Sao)’, ‘무에이 팔라수엑사(Muay Palasueksa)’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이다. 태국 현지 및 국내외의 논문,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수집을 위해 태국 현지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에이 롱부리는 롱부리, 무에이 차이아는 수랏타니 차이아, 무에이 코랏은 이짚 나콘랏차시마, 무에이 따 사오는 옷따랏딛 탐본 따 사오,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끄룽텝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다섯 유형 가운데 네 가지 유형의 형성 시기를 확인했다. 셋째, 다섯 유형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의 창시자를 확인했다. 넷째, 다섯 유형 가운데 네 가지 유형은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으나, 한 가지 유형은 단절되었다. 다섯째, 지역별 유형의 특이사항으로는 ‘롱부리, 차이아, 코랏 수련자들의 어전 시합 참가 후 칭호 수여’, ‘딱신 대왕 호위무사의 무에이 따 사오 수련’, ‘무에이 팔라수엑사의 학교 체육교과 도입’ 등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태국 지역별 무에타이 이해를 통해 무예사 및 체육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주제어 : 태국, 무에타이, 무에보란, 무에이

* kumkangchamp@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무에타이(Muaythai, มวยไทย)는 태국의 국기(國技)로써 발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권석무, 2020) 전통무예이자 스포츠다(김대곤, 2010). 무에타이는 1932년 태국 체육교육부의 관계 법령 발표 이전까지 무에이(Muay, มวย)로 불렸고, 무에타이 명칭 정립 이전의 무에타이는 ‘오래되다’라는 의미의 보란(Boran, โบราณ)을 붙여 무에보란(Muayboran, มวยโบราณ)으로 부르거나(권석무, 2020), 밧줄을 손에 감아서 경기했던 전근대 경기방식을 밧대 무에이카드츄엑(Muaykhadchuek, มวยคาดเชือก)이라고도 하였다(Jarusdej Ulit, 2013). 현재는 무에타이, 영문으로는 타이복싱(Thai boxing)이라고 불린다(김대곤, 2010).

무에타이의 무에이는 AD 13-15세기에 오늘날 태국 중부 지역에 존재한 수코타이 왕국(Anachak Sukhothai, อาณาจักรสุโขทัย)의 사료에서 최초로 확인되며, 중국 윈난(雲南) 타이족의 이주, 크메르제국(Khmer empire, ចក្រភពខ្មែរ), 몬(Mon, มอญ), 티벳-버마(Tibeto-Burmese) 등의 내륙 세력과 말레이(Orang Melayu)와 같은 해양 세력의 영향을 꾸준히 받아오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권석무, 2020).

이같이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포함한 외세로부터 꾸준히 영향을 받아온 태국은 지역별로 문화적 양태에 차이가 나타남과 동시에 무에타이 또한 지역별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한 차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으로 남게 되었다.

무에타이는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되었고, 그 시초는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맨몸으로 적과 싸워 이기도록 훈련한 군사 무예에서 시작되었다(대한무에타이협회, 2023).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군사 무예로서 무에타이가 국토방위에 한 부분을 차지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김한진, 김진환, 2020).

2000년대에 들어서는 UFC 등의 종합격투기가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무에타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무예 수련뿐만 아니라, 호신술과 다이어트 효과가 주목받으며(김희수, 정이루리, 2019), 태권도, 유도에 이어 무예 종목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련인구를 보유하기도 했다(류형기, 여지은, 2013). 수련인구의 증가 및 여러 공식 대회가 생겨나면서 무에타이는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한국 내 입지를 넓혀 갔다(류형기, 여지은, 2013).

국내 무에타이는 1991년 11월 사회단체 국제격투기연맹으로 출발한(대한무에타이협회, 2023) 이후로 협회 창립 30여 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해볼 때 무에타이의 올바른 역사가 자리잡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에타이의 올바른 역사나, 정신은 사실과 다르게 국내에 알려져, 무에타이의 올바른 역사가 자리 잡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무에타이 연구는 약 15편(2023년 4월 1일기준) 정도만 보이고 있으며, 공성배, 김보겸, 김대곤(2012)의 ‘무에타이 체육관 선택속성이 수련만족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영중(2009)의 ‘무도의 향후 존재 가치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선행(2015)의 ‘중년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듬무에타이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은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실제로 무에타이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 및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진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무에타이의 전반적인 역사와 세계화 방안을 논의한 김대곤(2018)의 연구에서 라마 5세 쥘랄롱폰 대왕 시기에 어전(御前) 무에타이 시합에서 대왕에게 칭호를 받은 끽텡(방콕) 출신의 ‘프라차이 초케 추카나’, 코랏 출신의 ‘무엔 차응갓 청 축’, 차이야 출신의 ‘무엔 무에이 미 추’, 록부리 출신의 ‘무엔 무만 못’ 등(Panya & Pitisuk, 1988: 재인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이 수련한 태국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탐색은 현재까지 후속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태국 현지 사료와 연구자료 등에 나타난 수코타이 왕국 이후, 아유타야 왕국(Anachak Ayutthaya, อาณาจักรอยุธยา), 톤부리 왕국(Anachak Thonburi, อาณาจักรธนบุรี),

라타나코신 왕국(Anachak Rattanakosin, อาณาจักรรัตนโกสินทร์) 시기에 형성된 태국의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구체적 형성지역’, ‘형성 시기’, ‘창시자’, ‘전승 여부’, ‘특이사항’ 등을 밝혀 어떻게 현재까지 이르렀는지, 그 역사와 특징을 밝힐 때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전통무예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계화 및 국내 보급을 이룬 무에타이의 전근대 및 근대 발전 과정과 태국 현지의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와 특징을 밝힘으로써 무에타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무에타이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다양한 주변 민족과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온 태국의 역사적 특징에 의해 태국의 지역별 무에타이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중부 지역의 무에이 롭부리(Muay Lopburi, มวยลพบุรี), 남부 지역의 무에이 차ैया(Muay Chaiya, มวยไชยา), 동북부 지역의 무에이 코랏(Muay Korat, มวยโคราช), 북부 지역의 무에이 따 사오(Muay Tha Sao, มวยท่าเสา)와 태국 정부 제정 체계인 무에이 팔라수엑사(Muay Palasueksa, มวยลายพลศึก) 등의(Jarusdej Ulit, 2013) 다섯 지역별 고유 무에타이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헌 고찰 및 연구는 연구 주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여 요약과 해석에 적합하며(성태제, 시기자, 2020) 국내에는 기초연구 자료가 부족한 태국의 무에타이 역사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연구에서 태국 현지 문헌자료의 고찰 및 연구는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는 태국 정부 및 학계와 무에타이 국제기구 등과 같은 해외에서 발행한 교본, 보고서와 국내에서 발행한 저서와 학위, 학술 논문을 수집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에타이의 역사에 대해 논문(김대곤, 2010, 2018) 등으로 무에타이 역사를 정립했으며, 동남아시아 지

역의 무예를 포괄하는 연구(조성, 이무연, 2017;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등에서 무에타이가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권석무(2020)가 발행한 단행본 ‘태국의 혼, 무에타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전반적인 무에타이의 역사를 정리했으나, 태국 현지 지역별 풍속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외 무에타이 학술연구에서도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은 다루지 않고 있다.

무에타이의 역사와 중주국 태국의 특징 등을 다룬 김대곤(2010; 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룡부리, 차이야, 코랏 지역 등의 출신 사례를 언급했으나,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에 대한 역사와 특징을 다루지 않았고,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학술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학술연구 자료와 태국 체육교육부(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กรมพลศึกษา)에서 2016년, 2019년에 발행한 ‘무에타이의 역사(History of Muaythai,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มวยไทย)’와 태국 문화성(Ministry of Culture, กระทรวงวัฒนธรรม) 문화진흥부(Department of Cultural Promotion)의 후원 기금 연구사업으로 이뤄진 Jarusdej Ulit(2013)의 ‘Knowledge Management for Muaythai Knowledge 5 styles(การจัดการความรู้มวยไทย5สาย)’를 비롯한 해외 선행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태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신력 있는 문헌자료 가운데 영문으로 작성되어 해석이 용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II. 무에타이의 역사적 배경

무에타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태국의 역사에 대해 김대곤(2010), 김대곤(2018)은 중국 운남성의 타이족 이주부터 수코타이 왕국, 아유타야 왕국, 툰부리 왕국, 라타나코신 왕국의 순서대로 다뤘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가 형성된 시기에 태국의 역사 배경이 되는 아유타야 왕국, 툰부리 왕국, 라타나코신 왕국으로 한정하여 무에타이의 역사

적 배경 논의를 진행했다.

1. 아유타야 왕국

아유타야 왕국(Anachak Ayutthaya, อาณาจักรอยุธยา)은 AD 1350년에 라마티보다 1세가 건국하여, AD 1767년 버마의 쏘마왕 왕국에 멸망한다(한국태국학회, 2017). 아유타야 왕국은 차오프라야 강 하류의 오늘날 태국 중부 지역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다(권석무, 2020). 아유타야 왕국은 417년간 다섯 왕조의 국왕 33인이 다스렸는데(한국태국학회, 2017), 당시 왕국이 놓인 안보 환경 등을 이유로 부왕(副王)을 두어 국정을 운영하고, 지방 귀족에게 차등하여 봉토(封土)를 분배했던 싹디나(Sakdina, ศักดินา) 제도 등을 이유로 잦은 쿠데타가 발생했다(권석무, 2020).

아유타야의 국왕들은 직속 호위 부대인 콩 탄나이 루악(Kong Thanai Luak, กองหน่วยเสือ)을 거느렸고, 호위 부대의 무사들은 크롬 낙무아이(Krom Nak Muay, กรมหมานมวย)라고 불렸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국왕이 머무는 왕궁에서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누구도 무기를 반입하지 못했고, 국왕을 지키는 호위무사 크롬 낙무아이들 또한 맨몸으로 침입자를 제압했다(권석무, 2020).

아유타야 왕국 일반 백성들 사이 무에타이의 인기는 당시 외국인들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AD 17세기 프랑스 특사로 파견되었던 simon de la loubère(1642-1729)는 아유타야의 무에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유타야 사람들은 주먹, 팔꿈치, 무릎, 그리고 발을 사용해 무에타이를 한다. 이러한 격투는 매우 인기가 많아서 어떤 이들은 무에타이를 직업으로 삼는다(Culture, Sports and Tourism Department,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2012).”

아유타야 왕국에서 무에타이는 왕족부터 귀족,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경기 형태로써 즐길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련할 만큼 대중적이었다(권석무, 2020).

2. 툰부리 왕국

툰부리 왕국(Anachak Thonburi, อาณาจักรธนบุรี)은 AD 1767년에 딱신 대왕(Somdet Phra Chao Taksin Maharat, 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ตากสินมหาราช)이 건국하여, AD 1782년 딱신 대왕의 신하였던 짜끄리(Chakri, จักรี)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멸망한다(한국태국학회, 2017). 툰부리 왕국 시기에도 무에타이 수련과 경기는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사적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 백성들 사이 개인지도 수련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방에서는 각 훈련소에서 상호 경기 규정을 합의했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 및 규칙은 확인되지 않는다(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딱신 대왕의 신변을 보호했던 판나이 루악에는 프라야 피짜이 다압 학(Phraya Phichai Daab Hak, พระยาพิชัยดาบหัก)이라고도 불리는 통디(Thongdee, ทองดี)라는 이름의 크롭 낙무아이가 있었으며, 그는 오늘날 태국 무에타이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권석무, 2020).

3. 라타나코신 왕국

라타나코신 왕국(Anachak Rattanakosin, อาณาจักรรัตนโกสินทร์)은 AD 1782년에 딱신 대왕의 신하였던 짜끄리(Chakri, จักรี)가 라마 1세에 즉위해 건국했으며(한국태국학회, 2017), 오늘날 라마 10세에 이르기까지 짜끄리 왕조(Ratchawong Chakri, ราชวงศ์จักรี)는 태국을 다스리고 있다. 권석무(2020)는 짜끄리 왕조가 현재에도 태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태국 현지의 학술자료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과 사료에 대한 해석 등에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타나코신 왕국 시기에 이르러서 무에타이는 서구 스포츠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스포츠 경기화를 이뤘으며, 동남아시아경기대회(South East Asian Games), 세계무예마스터십(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월드게임(World Games), 월드컴벳게임(World Combat Games) 등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정식종목으

로 채택되었고, 국제아마추어무에타이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Muaythai Associations)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국제대학스포츠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종목인증을 통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의 올림픽공인종목협의회(Association of IOC Recognised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등의 국제스포츠기구에 가맹하는 성과를 이뤘다(조성, 이무연, 2017).

Ⅲ.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

1. 무에이 롱부리

무에이 롱부리(Muay Lopburi, มวยลพบุรี)는 태국 중부의 롱부리(Lopburi, ลพบุรี)에서 시작되었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태국 중부 지역은 AD 13세기 수코타이 왕국 이전 시기에도 여러 왕국과 문명이 존재해왔고, 무에이 롱부리 또한 AD 7세기 무렵부터 형성되어 약 1,30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2016)은 설명했다.

그러나 무에이 롱부리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라마 5세 쭈랄롱꼰(Chulalongkorn, จุฬาลงกรณ์) 대왕의 재위 시기였으며(권석무, 2020), 그 이전 시기의 무에이 롱부리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의 무에이 롱부리보다 태국 중부 지역에서 나타난 무에타이의 역사 사료 및 흔적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

라마 5세 시기를 기준으로 무에이 롱부리의 형성 시기를 놓는다면,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무에이 롱부리는 특유의 경쾌한 움직임과 압박을 가하는 펀치 기술이 특징으로 꼽히며, 전략을 사용하는 영리한 무에타이라는 의미의 무에이 키우(Muay Kiew, มวยเกี้ยว)라고도 불린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AD 1909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 라마 5세 쫄랄롱꼰 대왕의 우루퐁라차솜팟(Urupongrachasompot, อุรุพงษ์ราชสมภพ) 왕자 장례식에서 어전(御前) 무에타이 시합이 개최되었고(권석무, 2020), 무에이 룬부리를 수련했던 신원미상의 낙무 아이가 시합에 승리하며, 무엔 무만 못(Muen Muman Mud, หมื่นเมืองแม่หมัด) 칭호를 하사받았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무에이 룬부리는 오늘날 태국의 수도인 방콕이 속한 중부 지역의 무에타이 유형이기에 호신술, 또는 전통적 수련 방식 대신 현대 스포츠 경기 중심으로 프로화된 무에타이의 전신으로써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권석무, 2020).

2. 무에이 차이야

무에이 차이야(Muay Chaiya, มวยไชยา)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며, 태국 남부의 수랏타니(Surat Thani, สุราษฎร์ธานี)의 차이야(Chaiya, ไชยา)에서 시작되었다(권석무, 2020). 무에이 차이야는 라마 3세 낭끌라오(Nangklao, นั่งเกล้า) 왕 재위기에 활동했던 무관 출신의 포 탄 마(Po Than Ma, พอตันมา)가 창시했다고 전승되고 있으며(Jarusdej Ulit, 2013), 그는 루앙 포 마(Luang Po Ma, หลวงพอม)라고 불리기도 한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우루퐁라차솜팟(Urupongrachasompot, อุรุพงษ์ราชสมภพ) 왕자 장례식의 어전(御前) 무에타이 시합에 무에이 차이야를 수련했던 뽕롱 줌논통(Plong Chumnonthong, ปล่องจุ่มนอง)이 참가해 승리하며, 명예의 전사라는 의미의 무엔 무에이 미 추(Muen Muay Mee Cheu, หมื่นมวยมีชื่อ) 칭호를 하사받는데, 이는 차이야 지역의 특별 정부 행정관리로써 300 싹디나(Sakdina, ศักดินา)의 경작지를 소유할 권한을 가졌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무에이 차이야는 람캄행 대학교(Ramkhamhaeng University) 등을 중심으로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통적 수련 방식의 전수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권석무,

2020).

3. 무에이 코랏

무에이 코랏(Muay Korat, มวยโคราช)은 태국 동북부를 뜻하는 이싼(Isan, อีสาน) 지역의 코랏(Korat, โคราช) 또는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นครราชสีมา)에서 시작되었다(권석무, 2020). 무에이 코랏의 기원 연도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코랏 지역의 낙무아이(Nak Muay, นกมวย)가 태국 사료에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라타나코신 왕국(Anachak Rattanakosin, อาณาจักรรัตนโกสินทร์) 짜끄리 왕조(Ratchawong Chakkri, ราชวงศ์จักรี)의 라마 5세 쥘랄롱꼰(Chulalongkorn, จุฬาลงกรณ์) 대왕의 재위 기간 중인 AD 1909년이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우루퐁라차솜팟(Urupongrachasompot, อรุพงษ์ราชสมภพ) 왕자 장례식의 어전(御前) 무에타이 시합에 무에이 코랏을 수련한 나이 땡 타이쁘라삿(Nai Daeng Thaiprasert, นายแดงไทยประเสริฐ)은 무엔 차응갓 청 축(Muen Cha-Ngad Cheong Chok, หมื่นชงดเชิงชก)에 임명되며, 300 썩디나(Sakdina, ศักดินา)의 경작지를 소유할 권한을 가졌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무에이 코랏은 오늘날에도 이싼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싼 지역의 무에타이 선수들의 무에이 코랏의 특징적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권석무, 2020).

4. 무에이 따 사오

무에이 따 사오(Muay Tha Sao, มวยท่าเสา)는 태국 북부 웃따랏딛(Uttaradit, อุดรดิตต์)의 무앵 우따랏딛(Mueang Uttaradit, เมืองอุดรดิตต์) 탐본(Tambon, ตำบล)의 따 사오(Tha Sao, ท่าเสา)에서 시작되었다(권석무, 2020). 무에이 따 사오의 창시자는 크루 맥(Kru Mek, ครูเม็ก)이라는 설화가 전해진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크루 맥은 아유타야 왕국(Anachak Ayutthaya, อาณาจักรอยุธยา)의 멸망과 톤부리 왕국(Anachak Thonburi, อาณาจักรธนบุรี)의 건국 시기에 활동했던 AD 18세기 인물이며, 창시자 크루 맥의 설화에 의하면 무에이 따 사오는 약 25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크루 맥의 제자는 딱신 대왕의 호위무사였던 프라야 피짜이 다압 학(Phraya Phichai Daab Hak, พระยาพิชัยดาบหัก)이었고, 이를 이유로 무에이 따 사오는 무에이 프라야피짜이(Muay Phraya Phichai, มวยพระยาพิชัย)라고도 불린다(Jarusdej Ulit, 2013).

무에이 따 사오는 크루 맥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며 명맥을 이어오다가 AD 1979년 마지막 전승자인 크루 플롱(Kru Phlong, ครูโพล่ง)이 사망하면서 공식적으로 단절된 유형이 되었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016).

5. 무에이 팔라수엑사

무에이 팔라수엑사(Muay Palasueksa, มวยลายพลศึก)는 오늘날 태국의 수도 크룽 텡(방콕)에서 위분사왓윙 싸왓디쿤(Wibunsawatwong Sawatdikun, วิบูลย์สวัสดิวงศ์สวัสดิกุล, 1885-1940) 왕자가 주도하여 체육교육연구소(Physical Education Institute, สถาบันการพลศึกษา)에서 기존 지역별 무에타이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정되었다(Muaythai Conservation Center of Thailand, 2012). 새롭게 제정된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학교 체육에 도입되었다(권석무, 2020).

AD 1954년에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중앙체육교육학교(Central Physical Education School)의 교육과정 개편에도 교과목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체육교육대학(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시나카린위롯 대학교(Srinakharinwirot University)로 교명이 변경되면서도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체육교과로 명맥을 유지했다(Institute of Muay Thai Art, 2017).

태국 체육교육부(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กรมพลศึกษา)는 방콕을 비롯

한 태국 전국에 17개 체육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했으며, 대학 체육교과로 무에이 팔라수엑사가 보급되었다(Institute of Muay Thai Art, 2017).

IV.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의 역사적 특징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인 무에이 룽부리, 차이야, 코랏, 따 사오, 팔라수엑사의 역사와 특징을 문헌 고찰을 통해 파악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의 특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 특성 분석

유형명	지역	형성 시기	창시자	전승	특이사항
무에이 룽부리	룽부리	7세기~19세기	미상	전승	라마 5세 어전 시합 칭호 수여
무에이 차이야	수랏타니 차이야	19세기 중반	포 탄 마	전승	라마 5세 어전 시합 칭호 수여
무에이 코랏	이싼 나콘 랏차시마	미상	미상	전승	라마 5세 어전 시합 칭호 수여
무에이 따 사오	웃따랏딛 탐본 따 사오	18세기 중반	크루 맥	단절	딱신 대왕 호위무사 프라야 피차이 다압학
무에이 팔라수엑사	끄룽텝 (방콕)	20세기 초반	위분사왓윙 싸왓디콘	전승	학교 체육교과 도입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태국의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은 무에이 룽부리는 룽부리, 무에이 차이야는 수랏타니 차이야, 무에이 코랏은 이싼 나콘랏차시마, 무에이 따 사오는 웃따랏딛 탐본 따 사오,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끽룽텝(방콕)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형성시기를 보면 무에이 룽부리는 7세기~19세기, 무에이 차이야는 19세기 중반, 무에이 따 사오는 18세기 중반,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20세기 초반으로 나타났고, 무에이 코랏은 형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 가운데 무에이 룽부리에 대해 태국 체육교육부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กรมพลศึกษา), 방콕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부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partment,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สำนักงานวัฒนธรรม กีฬา 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태국 무에타이보존센터(Muaythai Conservation Center of Thailand, สถาบันอนุรักษ์ศิลปะมวยไทย) 등의 정부 기관과 Jarusdej Ulit(2013) 등의 연구에서는 AD 7세기 중반으로 형성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본과 학술연구에서도 무에이 룽부리의 창시자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AD 7세기 중반, 태국 중부 지역에서 형성된 격투 기법과 AD 20세기 초반 라마 5세 쫄랄롱꼰 대왕 시기 사료에 나타난 무에이 룽부리가 같은 유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무에이 룽부리의 형성 시기를 최초의 사료가 나타나는 19세기 후반으로 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무에이 룽부리와 무에이 코랏의 최초 형성 시기를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창시자를 보면 무에이 차이야의 포 탄 마, 무에이 따 사오의 크루 맥, 무에이 팔라수엑사의 위분사왓윙 싸왓디쿤 으로 나타났고, 무에이 룽부리와 무에이 코랏은 창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창시자가 나타난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무에이 차이야의 포 탄 마와 무에이 따 사오의 크루 맥은 설화를 통해 알려진 인물로서 창시자 규명에 있어 역사적 신뢰도에 한계가 있었다. 무에이 팔라수엑사의 위분사왓윙 싸왓디쿤은 오늘날 태국의 현형 짜끄리 왕조의 왕자였던 만큼 인물의 실존 여부에 의구심이 없었으며, 창시자 규명 또한 이전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신뢰도가 높았다.

넷째,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명맥이 유지되는 유형으로는 스포츠 경기 형태의 프로화된 무에타이의 형태로 전승 및 발전된 무에이 룽부리, 람캄행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전통 수련법이 전승되는 무에이 차이야, 이싼 지역 일대에서 오늘날까지 수련되며, 이싼 지역 무에타이 선수들

이 수련하는 무에이 코랏, 그리고 태국 내 학교 체육교과로써 현재도 수련되는 무에이 팔라수엑사가 있다. 무에이 따 사오는 유일하게 마지막 전승자가 AD 1979년에 사망하며 단절된 무에타이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전승 및 발전된 유형의 사례와 단절된 유형의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전통무예의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밝히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다섯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은 무에이 롬부리, 차이야, 코랏 모두에서 ‘라마 5세 어전 시험 칭호 수여’가 나타났으며, 무에이 따 사오에서는 ‘딱신 대왕의 호위무사 프라야 피차이 다압 학’, 무에이 팔라수엑사에서는 ‘학교 체육교과 도입’ 등이 나타났다.

라마 5세 쫄랄롱꼰 대왕의 어전 무에타이 시험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기록이다. 다섯 유형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이 어전 시험에서 쫄랄롱꼰 대왕으로부터 칭호를 받았으며, 이는 정부의 특별 행정관리로써 300 썩디나의 봉토를 부여하는 보상이 따랐다. 이를 통해 당시 태국에서는 무에타이 실력이 뛰어나면 공직을 얻었음을 확인했다.

딱신 대왕의 호위무사였던 프라야 피차이 다압 학이 무에이 따 사오를 수련했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들이 군사 무예로써 무에타이를 수련했음을 확인했다. 무에타이의 군사 무예로써 특징과 역할을 파악하여 무예의 군사적 의의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무에이 팔라수엑사가 AD 1950년대 무렵부터 학교 체육교과에 도입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태국은 자국의 전통무예를 서구 교육제도를 받아들인 이후로도 일찍이 학교 체육교과에 포함해 지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에타이의 체육교과 역사와 역할을 파악하여 전통무예의 학교 체육교과 적용 사례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의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적 특징을 탐색하여, 다섯 지역별 유형의 형성지역, 형성 시기, 창시자, 전승 여부, 특이사항 등을 다뤘다.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내용은 후속 연구에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태국 다섯 지역의 고유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적 특징을 확인하여 오늘날 태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보급된 통상의 무에타이가 형성된 과정의 일부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기존 국내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진 한국의 태권도와 일본의 유도, 가라테, 검도 등의 근현대 통합 과정 탐색에 비해 생소한 태국의 무에타이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무예 종목들과의 비교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태권도가 청도관(靑濤館), 송무관(松武館), 무덕관(武德館), 창무관(彰武館), 지도관(智道館) 등의 다섯 관(館)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형성(정경원, 2012)되어 올림픽 정식종목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태국의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에서 오늘날 올림픽공인종목협의회(ARISF) 회원 종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그러한 비교 연구의 시작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와 특징을 밝혀, 태국 무에타이의 이해를 돕는 발전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무에이 롭부리(Muay Lopburi, มวยลพบุรี)’, ‘무에이 차ैया(Muay Chaiya, มวยไชยา)’, ‘무에이 코랏(Muay Korat, มวยโคราช)’, ‘무에이 따사오(Muay Tha Sao, มวยท่าเสา)’, ‘무에이 팔라수엑사(Muay Palasueksa, มวยปลายพลศึก)’ 등 총 다섯 가지 무에타이 유형이다. 태국 현지 및 국내외의 논문, 문헌 및 연구보고서, 태국 현지 방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역사와 특징을 탐색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 가운데 무에이 롭부리는 롭부리, 무에이 차ैया는 수랏타니 차ैया, 무에이 코랏은 이싼 나콘랏차시마, 무에이 따사오는 윗따

랏딧 탐본 따 사오,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끄룽텝(방콕)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형성 시기는 AD 18세기의 무에이 따 사오, AD 19세기 중반의 무에이 차이야, AD 7~19세기의 무에이 록부리, AD 20세기 초반의 무에이 팔라수엑사 순으로 나타났으나, 무에이 코랏은 정확한 형성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고, 무에이 록부리의 정확한 형성 시기 또한 결정짓지 못했다. 셋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의 설화, 사료 등에서 창시자가 나타난 유형은 무에이 차이야의 포 탄 마, 무에이 따 사오의 크루 맥, 무에이 팔라수엑사의 위분사왓윙 싸왓 디쿤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에이 록부리와 무에이 코랏은 창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넷째, 무에이 록부리는 프로화된 무에타이의 형태로 전승 및 발전되었으며, 무에이 차이야는 전통 수련법이 전승되고 있다. 무에이 코랏은 이싼 지역 일대에서 수련되며, 이싼 지역 무에타이 선수들의 기술에서 무에이 코랏의 기술이 나타났다. 무에이 팔라수엑사는 학교 체육교과로 수련되고 있으며, 무에이 따 사오는 마지막 전승자가 1979년에 사망하며 단절되었다. 다섯째,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의 특이사항은 ‘라마 5세 어전 시합 칭호 수여’가 무에이 록부리, 차이야, 코랏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무에이 따 사오에서는 ‘딱신 대왕의 호위무사 프라야 피 차이 다압 학’, 무에이 팔라수엑사에서는 ‘학교 체육교과 도입’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태국 다섯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 역사와 특징을 파악하여 무에타이의 이해를 돕고, 역사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무예사 및 체육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더 나아가 한국과 태국의 양국 문화 이해를 높여 관계 발전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태국 각 지방의 대표적인 무에타이 유형을 태국 정부와 선행연구 등에서 선별한 유형을 참고했으나, 다섯 지역별 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의 무에타이 유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나머지 태국 지역의 무에타이 유형 등은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에이 록부리와 코랏의 명확한 형성 시기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무에이 록부리와

무에이 코랏의 창시자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 전승된 네 가지 유형의 전승 및 발전 형태를 밝히고, 단절된 한 가지 유형의 단절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무에타이 유형의 특이사항으로 확인된 명제의 역사적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태권도를 비롯한 기존 국내 학계에서 연구가 이뤄진 무예 종목들과의 근현대 형성 및 세계화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공성배, 김보겸, 김대곤(2012). 무에타이 체육관 선택속성이수련만족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697-706.
- 권석무(2020). **태국의 혼, 무에타이**. 서울: 퍼플.
- 김대곤(2010). **한국 무에타이의 도입 및 발전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대곤(2018). **무에타이의 세계화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한진, 김진환(2020).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태국 무에타이 적용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1, 91-114.
- 김희수, 정이루리(2019). 무에타이 수련이 남자 중학생 정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심리운동연구**, 5(2), 35-49.
- 대한무에타이협회홈페이지(2023). <http://www.koreamuaythai.net>. 대한무에타이협회.
- 류형기, 여지은(2013). 무에타이 수련활동 참여의 본질적 의미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3(1), 97-107.
- 성태제, 시기자(202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윤영중(2009). **무도의 향후 존재 가치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선행(2015). **중년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듬무에타이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 정경원(2012). **광복이후 태권도 관의 생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조성, 이무연(2017). 동남아시아 무예의 세계화 과정 탐색. **대한무도학회지**, **23(3)**, 25-35.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세계무예 조사용역 아시아 5개국**.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 한국태국학회(2017). **태국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partment,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สำนักงานวัฒนธรรม กีฬา 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2012). *Muaythai - Magnificent Martial Art of Siam(มวยไทย กระบองเพชรแห่งสยาม)*. Bangkok: Chakrabhand Posayakrit Foundation.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กรมพลศึกษา). (2016). *History of MuayThai(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มวยไทย)*. Bangkok: BTS Press Co., Ltd.
- Institute of Muay Thai Art(สถาบันศิลปะมวยไทย)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กรมพลศึกษา). (2017). *Muay Thai Palasueksa(มวยไทย สายพลศึกษา)*. Bangkok: Onpa Co., Ltd.
- Jarusdej Ulit(นายจรเดช อุลิต). (2013). *Knowledge Management for Muaythai Knowledge 5 styles(การจัดการความรู้มวยไทย5สาย)*. Ministry of Culture(กระทรวงวัฒนธรรม).
- Muaythai Conservation Center of Thailand(สถาบันอนุรักษ์ศิลปะมวยไทย). (2012). *Arts of Muaythai(ศิลปะมวยไทย)*. Bangko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กรมพลศึกษา).
- Panya Kraitus, Pitisuk Kraitus(1988). *Muay Thai- The most Distinguished Art of Fighting*. Bangkok: Asia books.

ABSTRACT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ype of Muaythai by region of Thailand: A case study with 5 regions

Kwon, Seok-Mu · Lee, Seung-Jae · Kong, Seong-bae(Yong-i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Muaythai in Thailand by revealing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ypes by reg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a total of five types: Muay Lopburi, Chaiya, Korat, Tha Sao, and Palasueksa.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ypes of Muaythai by regions were explored through papers, literature, and reports in-and-outside Thailand. In addition, data on Muaythai by regions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and visits to Thail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pecific formation areas of types of Muaythai by regions were identified. Second, four types were identified. the formation period of four types of the five types by regions were identified. Third, the founder of three types were identified. Fourth, four types are still passed down, but one type has been lost. Fifth, the specialties include ‘Fighter of Muay Lopburi, Chaiya, Korat are awarded titles after participating to competition in front of the King’ , ‘Muay Tha Sao training of guard of Taksin the Great’ , ‘Introduction of Muay Palasueksa at school as physical education’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istory of martial arts and sports through understanding types of Muaythai by regions in Thailand.

Key words: Thailand, muaythai, muayboran, muay

논문투고일 : 2023.06.29

심사일 : 2023.08.24

심사완료일 : 2023.08.28